

영상 넘어 치러지는 면접… 비대면 온라인 채용 확산

코로나 영향으로 기업들 공채 연기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해 면접 진행

“지원자 안전·편의 고려한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업들의 올 상반기 채용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던 신입공채가 전면 연기된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채용전형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속속 늘고 있다.

11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라인플러스(LINE+), 이스트소프트는 올해 상반기 전체 전형에서 비대면 기반 채용을 진행키로 했고, LG전자, 카카오, CJ, SK, 롯데 등은 일부 채용에서 화상면접을 진행하거나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라인플러스와 이스트소프트 등 주요 IT기업은 서류접수부터 면접까지 100% 비대면 온라인 전형을 채택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했다. 라인플러스는 기존 모든 전형 과정을 온라인을 활용한 언택트(Untact) 방식으로 바꿨고, 코딩 테스트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면접 역시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원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이런 채용절차는 변경될 수 있다.

이스트소프트는 본사를 포함해 이스트시큐리티, 줌인터넷, 딥아이 등 총 4개사가 참여하는 그룹사 상반기 공채 전 과정을 온라인 채용으로 진행키로 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원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상 면접을 도입한 기업도 늘었다. LG전자는 경력직 지원자에 대한 1차 실무 면접을 화상 면접으로 대체해 진행 중이다. 카카오도 상시채용 지원자 면접을 모두 화상면접으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고, CJ그룹도 4월 진행되는 일부 직군 공개채용에 한해 화상 면접을 도입할 예정이다.

회사 SNS 채널을 온라인 채용설명회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눈에 띈다. 지난 6일부터 상반기 신입공채를 진행 중인 롯데그룹은 최근 유튜브 내 ‘엘리크루티비’ 채널을 개설, 주요 직군 업무 등을 담은 브이로그 등 채용 전용 콘텐츠를 업로드했다. SK그룹은 올해부터 오프라인 채용 행사를 열지 않고,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이 같은 채용전형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공채는 아직 안개속이다. 3월 신입공채 연기는 사실

상 기정사실이 됐고, 이후 예정된 필기, 면접전형은 물론 5~6월 중 모집에 돌입하는 하계 인턴, 하반기 공채까지 선발 일정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상반기 결원 등을 고려해 하반기 채용 규모가 상향된다면 구직자 입장에서 우려를 줄일 순 있지만 전체적인 일정 연기는 기업의 연간채용 기획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주이는 지켜보되 가능한 전형에서 온라인 방식을 적극 도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크루트는 ‘코로나19 기업 대응 채용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현재 10대 대기업부터 금융권, 공공기관 등 주요기업 30개사의 상반기 채용 변경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심기업으로 추가해 놓으면 관련 채용소식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중소·소상공인 지원정책, 다음 주 중 시작

당·정·청 제2차 코로나 대응 회의

업종별 자금 애로 완화 방안 논의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정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경제 현안 쟁기기에 나섰다. 코로나 19 사태로 교통·여행·교육·문화·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당·정·청은 11일 국회에서 ‘제2차 코로나 19 대응 회의’를 갖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업종별 자금 애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정책에 대해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 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증액하거나 지원 사업에 대해 신설·조정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경영계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왼쪽)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낙연 당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대책이 무르익고 현장에 전달될 수 있는 시점에 가까이 발표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라며 “생색내기를 자제하고 정책의 성숙이 가능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뒤 코로나 19 사태 관련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정부 측이 다음 주 중

시작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의 경우) 다음 주 중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의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19 대응 추경 증액을 내주 초까지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BMW코리아, 코로나 극복 동참… 8억 기부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구입에 사용

BMW 그룹 코리아 및 공식 딜러사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8억원을 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기부금은 의료진의 방호복과 생필품, 의료용품 지원 및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개인위생용품 구입에 사용된다.

BMW 그룹 코리아는 단순한 기부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BMW 코리아 미래 재단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에 나선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이번 사태가 전

정되는 대로 대표 목적사업인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와 ‘희망나눔학교’를 피해가 집중된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선적으로 편성, 아동 교육 정상화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BMW 그룹 코리아는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2011년 BMW 코리아 미래재단을 설립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단 설립 이후 2019년까지 누적 기부금은 약 320억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수입차 업계 최고 수준이다.

/양성운 기자 ysw@

기업 40% 재택근무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면서 이에 동참하며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11일 사람인이 기업 1089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실시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5곳 중 2곳(40.5%)은 이미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재택근무 실시 여부는 기업 유형별로 업무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대기업과 중견기업(각각 60.9%, 50.9%)은 절반 이상으로 많았으나, 중소기업(36.8%)은 이보다 적었다.

/한용수 기자

계열사 입점 기업 임대료 30% 감면

태광그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태광그룹은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과 성금 기부,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긴급지원금 및 마스크 전달 등 기부금과 물품을 포함해 총 8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태광그룹은 계열사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 감면해 주고,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월 감면 한도 없이 70%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흥국생명, 흥국화재, 티시스 등의 소유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대상이다.

일주학술문화재단도 재단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월 감면 한도없이 30% 인하해준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태광그룹, 착한 임대료 운동 등 8억 지원